“전통문화 인식 천박한 지자체에 경종”

단풍나무 숲 지켜낸 문수사 주지 선법 스님

“지자체에서는 전통문화유산의 보전보다는 개발을 전제로 한 근시안적 사업에 집착했습니다.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천박한 인식이 드러나는 거죠. 아름다운 숲의 본래 모습을 보존하면서 그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우선인데 말이죠.”

전국 유일 천연기념물 단풍나무 숲을 지켜내며 지자체의 전통문화 인식에 경종을 울린 ‘단풍나무 숲 지킴이’ 고창 문수사 주지 선법 스님(사진)이 눈길을 끌고 있다.

전북 고창 청량산에는 단풍나무, 고로쇠나무, 졸참나무, 개서어나무, 상수리나무, 팽나무, 느티나무가 어우러진 숲 속에 문수사가 고즈넉한 운치를 뽐내고 있다.

고창 은사리 청량산 입구에서 문수사 입구 부도밭까지 약 80m에 이르는 진입로에는 500여 단풍나무가 불법을 수호하듯 펼쳐져 있다. 단풍나무 숲은 전국 유일의 천연기념물 제463호로 지정될 만큼 탐스러운 곳이다. 작년, 고창군은 단풍나무숲 주변에 ‘신기 팜스테이 조성사업’을 진행했다. 팜스테이 조성사업은 자연환경 훼손은 물론 문화적 가치, 수행환경 훼손 등 얻는 것 보다 잃는 것이 많은 사업이었다.

문수사 주지 선법 스님은 12만㎡에 이르는 단풍나무 숲의 가치를 모르고 경제적 이익에 눈먼 이들의 사업에 반기를 들었다. 법적 대응도 불사했다. 선법 스님은 여타의 일은 모두 중단하고 단풍나무 숲을 지키기에 매진했다. 스님의 노력 끝에 건축허가는 취소됐다. 눈물겨운 성과였다.

“문수사와 단풍나무 숲은 어느 개인의 소유물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고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우리의 문화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었습니다.”

단풍나무 숲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고 아름답다는 소문이 나면서 고즈넉했던 산사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문수사 일원은 사람들로 몸살을 앓았다. 인력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관리, 통제는 불가능했다. 선법 스님은 그간 문수사 단풍나무 숲을 보존하기 위해 주민들과도 크고 작은 갈등이 있었다.

“숲에서 솥 걸어놓고 개 천렵을 하던 사람부터 나뭇가지를 마구 꺾는 사람들을 만류하다 멱살을 잡힌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숲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군에 관리인원의 충원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예산 관계로 반려됐죠. 산골 산사의 여력으로는 어려운 점이 많았죠.”

스님은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다는 표정이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장사가 이뤄지기 마련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일반 시민이 아닌 지자체였다.

선법 스님은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고 사찰과 마을 주민이 상생하며 숲의 생태적이고 친환경적인 발전을 위해 장기적인 청사진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선법 스님은 2008년 화재로 소실된 한산전 복원과 단풍나무 숲을 활용한 숲 명상 템플스테이, 생태 숲 학교 등을 계획하고 있다. 스님에게 숲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북 고창 청량산 단풍나무 숲은 천연기념물 제463호로 지정된 전국 유일의 숲이다.

“네티즌과 함께 번역한 〈아미타경소〉”

‘아미타파’ 인터넷 까페지기 정 목 스님

“원효 스님의 사상을 세상에 전하는 위대한 번역불사는 선근복덕과 지혜와 원행의 잠재력이 무궁함을 증명하는 거룩한 작업이었습니다.”

양산 오룡골 정토원장 정목 스님은 2월 13일 국제신문사에서 열린 〈아미타경소〉 출판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책은 부처님이 직접 설한 경전인 〈불설아미타경〉을 원효 스님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 설명한 〈아미타경소〉의 한글 번역본이다.

정목 스님은 “원효 스님의 〈아미타경소〉는 안타깝게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기 전 한문으로 쓰였다”며 “요즘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 원문 번역과 이해를 돕는 쉬운 해설을 곁들여 〈아미타경소〉로 펴내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책의 집필과정에서는 인터넷까페 ‘아미타파’ 회원들의 도움이 컸다. 회원들이 번역 및 해설, 교정 등 집필 전 과정에 동참했다.

스님은 “번역불사에 동참해 밤낮으로 교정을 보아주신 회원들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화신”이라며 “비록 수행력이 깊지 못한 소납이 해설하였지만, 이 책을 읽은 눈 밝은 선지식이 출현해 그 뜻을 더욱 깊고 넓게 전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2001년 4월 스님이 개설한 ‘아미타파’는 염불수행과 불교 교리 등 심도 있는 자기수행을 원하는 불자들이 모인 동호회로, 현재 150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정목 스님의 저서에는 〈염불신행의 원리와 비결〉 〈한국의 염불수행과 원효스님〉 〈윤회는 없다〉 〈신앙의 빛〉 〈오룡골에는 여자가 없다〉 〈무량수경종요〉 등이 있다.

박지원 기자

전주 신흥고, 기독교 교육강요 서약서 ‘물의’

기독교 사학인 전주 신흥고등학교가 신입생에게 학교 기독교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순종하겠다는 서약을 받아 물의를 빚고 있다.

신입생 자료에 의하면 신흥고는 2011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기독교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 순종하겠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한 학부모는 “입학할 때부터 종교를 믿지 않으면 처벌을 감수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건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와 관련 학교는 16일 “서약서에 그런 조항이 있는 줄 모르고 관행적으로 신입생 예비소집 때 학생들에게 보냈다”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문자를 보내 서약서 제출을 폐기하고 다른 입학관련 서류만 제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물의가 일자 각 기독사학의 홈페이지에는 이러한 내용이 삭제된 상태이다.

이번에 물의를 일으킨 전주 신흥고는 74명의 전체 교직원이 개신교 신자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해 30학급 1134명의 재학생 중 개신교 학생은 614명에 달하는 데 비해 불자학생은 18명, 천주교 58명, 원불교는 3명에 불과하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 ‘전주신흥고VS우석고’라는 제목의 질문에는 “신흥고는 일주일 동안 아침 조회시간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15분 정도 있다. 금요일 1교시에 정규 예배시간도 있고 정규 수업시간에도 성경과목 있다”며 “교회나 성당 다니지 않으면 좀 불편할 수도 있다”고 돼 있어 그간 교내에 심각한 종교편향이 진행됐음을 보여준다.

한편 지난 해 대법원은 학교가 학생에게 종교수업을 강요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만으로는 강력한 구속력을 발휘할 수 없으므로 교육당국과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기본교육법’ 등 대법원 판결을 강제할 수 있는 조문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교계 안팎에서 일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조계종부산聯, 안국불교대학에 새둥지

초대회장 수불 스님 수행 전법 활동 전개

조계종부산연합회는 2월 17일 조계종 부산연합회 회관에서 개관식을 봉행했다.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수불, 안국선원장)가 부산 거제동 옛 안국불교대학(학장 무관)에 새둥지를 틀었다. 연합회장이자 안국불교대학 이사장이기도 한 수불 스님이 조계종부산연합회의 발전을 위해 안국불교대학 건물을 쾌척했다.

조계종부산연합회 개관식은 2월 17일 거제동 ‘조계종부산연합회 교육관’에서 열렸다. 수불 스님은 “본 연합회의 창립계기가 우리 대학의 설립취지인 신도교육의 질적 향상과 일맥상통해 조계종부산연합회에 모든 운영권을 일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1년 사업계획으로는 수행 및 전법 영역으로 나뉜다. △민족전통문화수호대법회 개최(3월 17일 오후 2시 부산KBS홀) △성도재일 기념법회 개최 △부산불교연합회 주최 봉축대법회와 팔관회 동참 △도심포교 기획사업의 일환으로 세미나,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지원 기자

민족문화수호 합동방생법회

부산 범어사(주지 정여)는 2월 15일 경남 남해 상주해수욕장에서 정초방생법회 및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본 · 말사 합동방생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부산 영주암 주지 범산 스님은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결의문을 낭독하고 3월 17일 있을 부산 민족문화수호법회에 사부대중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박지원 기자

광주 금선사, 자비의 쌀 전달

광주 금선사(주지 일명)는 2월 12일 대웅전에서 ‘2011 행복나눔 금선사 자비나눔 기금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식에서는 자비의 찹쌀 1010kg과 150여 만원을 생명나눔실천광주전남지역본부, 자비신행회 등에 전달했다.

일명 스님은 “자비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곧 부처님에게 큰 공양을 올리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운천 스님, 장학금 전달

금산사 복지원 남원지부(지부장 운천. 선원사 주지)는 2월 10일 마진원(남원고 3)군 등 남원 지역 40여 초 · 중 · 고 학생에게 1인당 장학금 10만원씩을 전달했다.

운천 스님은 “받기만 하는 종교가 아닌 이웃에게 회향하는 부처님 제자로서 매년 장학금을 전달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대한민국 전통 상감청자 법륜대

사찰경제 바꾼다!!!

부처님이 봉안된 법륜대 만년 등으로 활기...

전통 상감청자 법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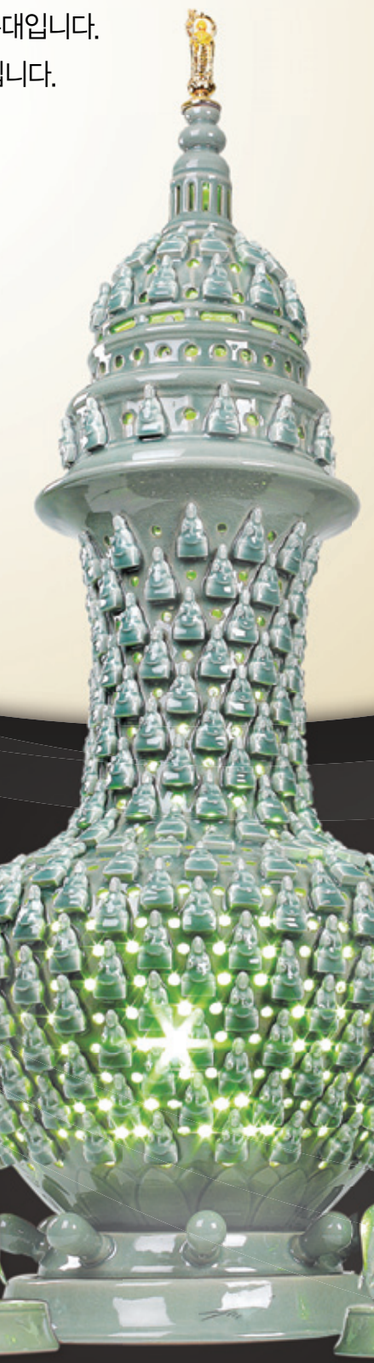
1. 수미단에 천불보탑 만년 등으로 시주자 명단을 새길 수 있습니다.
2. 전생 빚 해탈을 위한 황금 빛 금강경을 복장하는 법륜대입니다.
3. 가족의 소망을 적어넣고 직접 돌리는 신비한 법륜대입니다.

천년의 숨결로 살아온 상감청자!

그 전통과 자연으로 부처님께 공양합니다.
사찰경제 발원과 불제자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청다향의 마음입니다.

정갈하고 청정한 부처님의 공양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달마사 청오 합장



실용신안 특허의 기술

· 제품명 : 순금 상감청자 법륜대
· 높 이 : 120cm
· 원통폭 : 45cm
· 밑바닥폭 : 30cm
· 무 게 : 25kg

• 문의 : 덕유산 청다향 055)941-1083 010-4595-0017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156-4 달마사